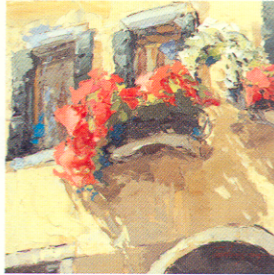


全美仙 個人展에 부치는 글

박영호 (多夕學會고문)



행복한 날 33.5×33.5cm Oil on Canvas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고 눈을 즐겁게하는 천청지려(天淸地麗)의 좋은 계절인 가을에 전미선님의 첫번째 개인전에 초대를 받고보니 쓰나미(津波)처럼 기쁨이 밀려올을 느낍니다. 이제부터 명실상부 화가로 탄생하는 의식이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서정주님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에는 소쩍새가 울고 여름엔 천둥이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화가가 태어나기 위하여 170억년 전에 우주란(宇宙卵)이 대폭발(Big Bang)을 하였고 46억년 전에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을 보고 과대망상이라 하겠지만 엄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쉽게 되는 일이라고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화가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생동안 이름을 기억하리 만큼 사귀게 되는 사람이 3천명에서 5천명 남짓하다고 합니다. 전미선님은 이 사람에게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면 전미선님이 행복하기를 빌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아가 전미선님이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값진 삶을 살기를 바라고 비웁니다. 이 사람이 성천(星泉) 류달영 선생님께서 세우신 사회정신 교육기관이라 할 성천아카데미에 다석 사상(多夕思想) 강의 맡았는데 전미선님을 그곳에서 사제(師弟)의 인연으로 만난 것입니다.

유구한 인류사에 사람이 동시대에 태어나는 것은 희귀한 맹구(盲龜)의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동시대에 태어났다 하여도 서로 알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사제의 인연으로 헤아릴 수 없이 여러번 만났으니 하늘의 섭리가 개재된 천개(鈿鈿)의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도록에 축사까지 쓰게 되었으니 어찌 가벼운 인연이라 하겠습니까. 전미선, 박상덕 부부화가는 각기 다석 류영모 스승님의 초상화를 그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무덤속에 묻혀 있더라도 무덤을 열고 나와서 축사를 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고회를 넘긴 나이에도 살아 있어서 기쁨으로 이 글을 쓰고 있으니 괴로운 삶이나마 오래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쉬운 일은 이제 전미선님의 미술작품을 보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나 감상할만한 심미(審美)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시일에 심미의 안목을 기를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고보니 지난 가을에 별세하신 류달영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류달영 선생님은 상당한 수준의 심미의 안목을 지닌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10년전쯤 유럽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덕수궁에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86살의 성천 선생님께서 이 사람에게 밀레의 그림을 보여 가지면서 앞장 서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림을 다 보고 난 뒤에 밀레의 그림 앞에는 다시 가서 한번 더 감상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때 성천선생님 말씀이 양정학교 담임선생님이던 김교신 선생님께서 "너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라고 한마디만 해주었다면 그림을 전공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성천 선생님께서 길을 걷다가 앞서 가는 여인의 허리 곡선이 너무도 아름다워 얼굴은 얼마나 미인일까 싶어서 뛰어가 보니 얼굴은 미인이 못되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파안대소 하였습니다. 성천 선생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전미선님의 개인전에 꼭 모시고 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꼭 좋은 평가를 해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은 몰라도 전미선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재능에 성실한 인성에 강인한 신앙을 지니고 있어 반드시 귀중한 작품으로 이 나라 미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이 사람은 전미선님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에게는 그림 그리기가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진리)이기 때문에 기도(명상)하기를 잊지말라는 것입니다. 전미선님도 화가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참나(얼나)에 비하면 예술도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기를 "신앙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실종된다(Faith is tested when the situation is most difficult)" (MK간디 '날마다의 명상')고 하였습니다. 전미선님이 이 사람의 다석사상 강의를 수강할 때 사람으로서는 건디기 어려운 시련속에 있었는데 다석사상을 통해 깨달은 진리의식으로 그 시련을 극복해 냈습니다. 전미선님이 한말에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한 마디를 듣고는 이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앞선 이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선미(眞善美)가 없다고 나는 말한다. 진선미란 영원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진선미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곤 한다.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참된 진선미가 아니다. 그러나 한량없이 권선(勸善) 심미(審美)하자는 인생이다. 진선미를 한정없이 추구하는게 인생이다. 진선미는 영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세상에는 진선미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절대)를 잃어버린 모양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아름다운 것은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있다. (Beauty lies not in the complexion, but in truth alone)" (M.K간디, '날마다의 명상')

"사랑(아가페)에 머무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사랑에 머물기를 골르지 않는다면 어찌 안다고 하겠는가?
(里仁爲美 擇不處仁 焉特知) (공자, 논어 이인편)

"세상(사람들이) 다 아름다워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아는 것은 이는 더러울 뿐이다"
(天下皆知 美之爲美 斯惡已) (노자, '노자도덕경 2장')

"어찌 나를 보고 선(아름답다)하다 하느냐 선한(아름다운)이는 하느님 한 분 뿐이시다" (예수 '성경마태복음')
전미선님의 개인전을 진심으로 경하하는 바입니다.